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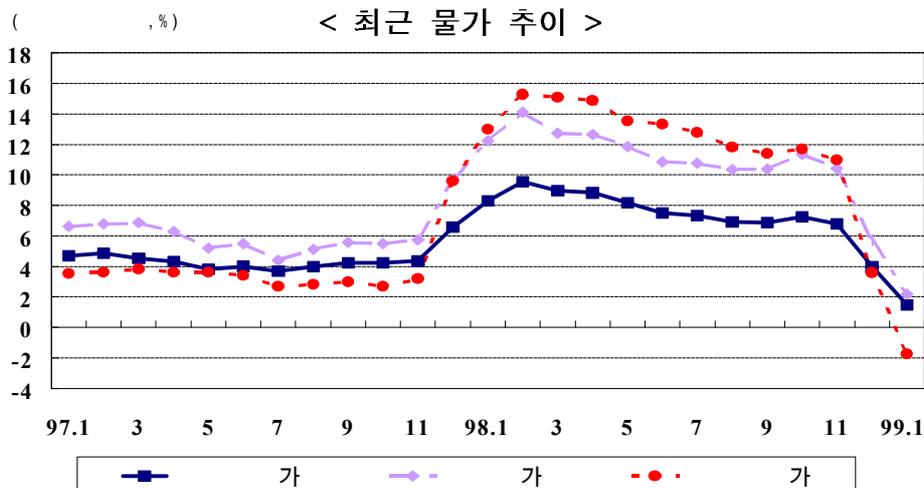
I. 주간 경제 동향

1. 경제 개관

□ 1월 중 물가 동향

환율 안정과 수요 위축에 따라 물가의 하향 안정세 지속, 1월 소비자물가는 87년 이후 가장 낮은 1.5% 상승에 그쳤고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로 1.8%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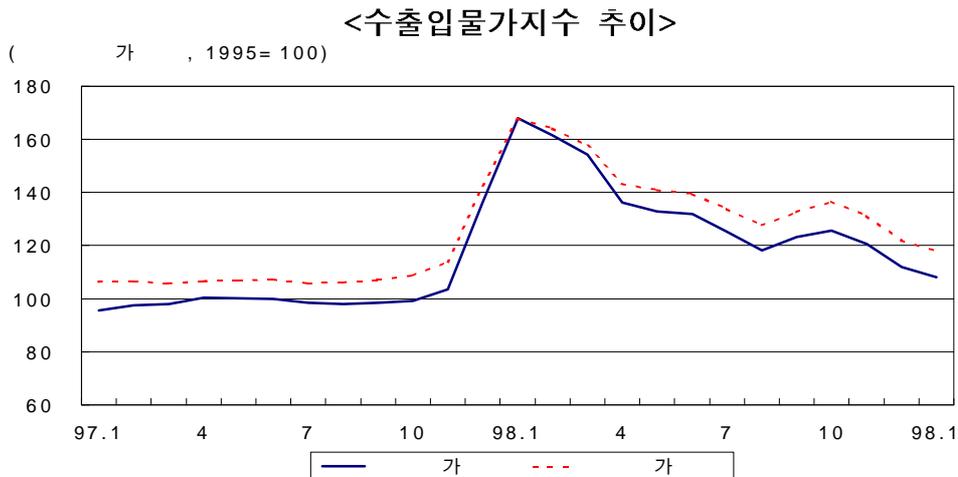
- (소비자물가) 환율 안정에 따른 공업제품 가격 및 서비스 가격 하락으로 전월대비 0.1% 하락. 전년동월대비로는 87년 이후 가장 낮은 1.5% 상승에 그침
 - 상품 성질별: 상품은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전월대비 1.3%)에도 불구하고 공업제품 가격의 하락(-0.4%)으로 전월에 비해 0.1% 상승에 그침. 서비스는 집세(-0.5%)와 개인서비스(-0.2%) 가격이 각각 9,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한데다 공공서비스 가격도 하락(-0.3%)한데 힘입어 전월대비 0.2% 하락
 - 생활물가: 전월에 비해서는 보합 수준, 전년동월대비로는 2.2% 상승
- (생산자물가) 농림수산물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자재가격 및 공산품과 서비스 가격 하락으로 전월 대비 1.1% 하락해 98년 11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
 - 전년동월대비로는 1.8% 하락했는데, 이는 환율 상승으로 인한 98년 1월중의 물가급등에 대한 반사효과에 기인
 - 생산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하락한 것은 87년 3월(-0.6%) 이후 처음임



□ 1월 수출입물가 동향

수입물가 하락으로 국내 물가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수출물가도 하락하여 기업의 채산성 악화가 우려됨

- (수입물가)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원유 등 국제원자재와 금속제품의 가격 하락과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1월 중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3.3% 하락
 - 99년 1월 중 수입물가지수는 117.9로서 전년 동월의 167.8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은 물론 전월인 98년 12월에 비해서도 3.3% 하락하였음
- (수출물가) 원화 환율이 하락한 데다 화학제품과 금속 1차제품의 가격이 내려 전월 대비 3.5% 하락하였음
 - 전년 동월비로는 35.6%나 내렸는데 이와 같이 수출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수입물가와 마찬가지로 작년 1월의 급등에 따른 반사 효과에 기인함



- (영향) 수입물가 하락은 국내 물가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나, 수출물가 하락은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킬 것으로 보임

□ 1월 중 외국자본 유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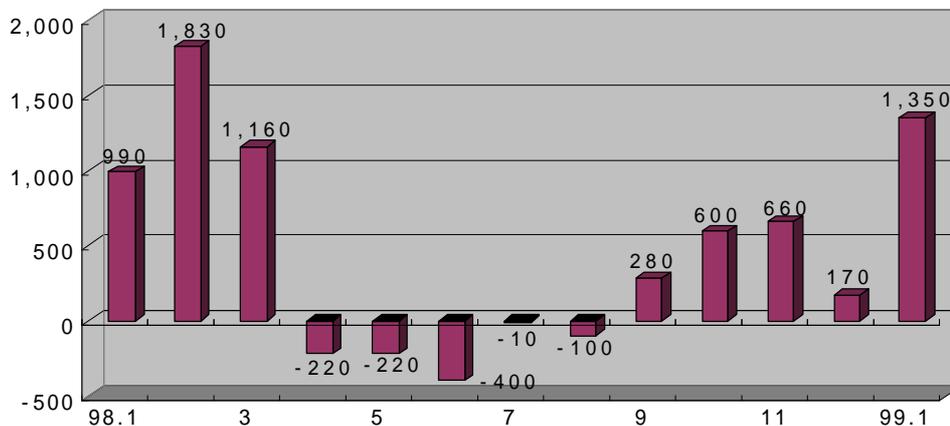
신용등급 향상 등에 힘입어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과 직접투자의 유입이 급증. 원고압력 최소화를 위해 무분별한 외자 도입을 자제하고 질 위주의 선별 도입 필요

-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 한국은행은 99년 1월의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 순유입

액이 13억 5,000만 달러로 11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

-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 순유입액은 98년 2월 18억 3,000만 달러에 도달한 이후 지속적인 부진을 면치 못했다가 올해 들어 큰 증가 추세를 보임
- 1월중 외국인의 국내 주식 구입 자금은 29억 7,000만 달러, 주식 매각을 통한 해외 송금 자금은 16억 2,000만 달러에 그친 것으로 조사. 유출 규모는 98년 12월과 비슷했지만, 유입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순유입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임
- 또 한국은행은 순유입액 가운데 미국계 펀드 등 중장기성 자금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단기성 헤지펀드 자금은 2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설명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의 순유입액 추이>



- **(외국인 직접투자)** 재정경제부는 1월중 외국인 직접투자가 130건, 9억 6,700만 달러(전년대비 51.2%, 643.8% 각각 증가)로 월별 실적으로는 사상 최대치라고 발표
 - 투자 유형별로는 공장 신설, 증자 참여 등 신주 취득을 위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6억 7,800만 달러로 전체의 70.1%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인수·합병(M&A)을 위한 구주 취득 목적의 투자였음
 -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4억 4,300만 달러로 전체의 45.8%를 차지한 반면, 비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5억 2,400만 달러로 제조업을 능가하였음
 - 투자 국가별로는 유럽연합(EU)이 5억 5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2.2%나 증가하였고, 미국도 3억 4,000만 달러로 35.2% 증가했음
- **(평가)** IBCA, S&P 등이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을 '투자 적격'으로 상향 조정 한 것이 외국인 직접 투자가 급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외환 위기로 인해 98년 1월의 외국인 투자가 워낙 저조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전망 및 대응 과제) 4월 이후 외환 거래 자유화가 시행되면 외국인 직접 투자가 더 증가할 전망이며, 달러 과잉 공급에 따라 지나친 원고가 초래될 우려도 있음
-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외국인 직접 투자의 양적 증가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평가를 통해 외자 도입을 선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외채 현황

98년 한해동안 총외채는 66억 달러 감소함. 또 단기 외채의 비중이 외환위기 직전의 55.0%에서 21.5%로 감소하는 등 외채 구조의 건전성도 높아지고 있음

- (외채 규모) 98년 12월말 총외채 규모는 1,514.6억 달러를 기록하여 11월말에 비해 9.9억 달러 감소, 98년 한 해 동안은 총외채가 66.0억 달러 감소
 - 공공부문 외채가 IMF지원금 상환으로 5.3억 달러 감소하고, 금융기관들도 12월 중 외화증권을 15.0억 달러 상환한 데 힘입어 전반적인 외채 규모가 축소되었음
 - 그러나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들이 가진 외채 규모가 12월 한 달 동안 9.9억 달러나 증가하여 전체적인 외채 규모 감소가 9.9억 달러에 그쳤음
 - 한편, 외채에서 대외 채권을 제한 순외채 규모는 12월 중 국내 금융기관들이 대외 채권을 상당 부분 처분함에 따라 11월 말에 비해 17.1억 달러나 증가하였음
- (외채 구조) 단기 외채 비중이 낮아지고 있어 규모면에서는 물론 구조면에서도 외채의 건전성이 높아지고 있음
 - 외환위기 발발 시점인 97년 11월 말 현재 단기 외채 비중은 55.0%에 이르렀으나 98년 말에는 21.5%로 감소

<순외채 규모 추이>

	96년 말	97년 말	98년 11월말	98년 12월말	증감	
					12월 중	98년 중
총외채	1,643.4	1,580.6	1,524.5	1,514.6	-9.9	-66.0
장기	713.6(43.4)	948.4(60.0)	1,214.8(79.7)	1,189.3(78.5)	-25.5	240.9
단기	929.8(56.6)	632.2(40.0)	309.7(20.3)	325.3(21.5)	15.6	-306.9
대외채권	1,114.5	1,053.8	1,325.0	1,298.0	-27.0	244.2
순 외 채	528.9	526.8	199.5	216.6	17.1	-310.2

주: () 안의 수치는 총외채에서 차지하는 비중(%)

□ 금융시장 동향

원/달러 환율은 공급우위 지속에도 불구하고 정부 간접 개입으로 1,170원대에서 소폭 등락. 금리는 저점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보합세 지속. 주가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유상증자 확대에 대한 심리적 부담 등이 작용해 하락세를 지속

-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은 1,170원대에서 소폭 등락

-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 수출 기업의 네고 물량 유입 등 외환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여 환율 하락 압력이 지속
- 그러나, 국책은행 등을 통한 당국의 간접 개입으로 하락이 제약되어 1,170원대에서 지리한 소폭의 등락의 거듭함. 2월 8일 현재 1,174.0원을 기록

- (자금시장) 금리 보합세

- 콜금리 등 단기금리는 자금수급에 의해 움직임으로써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반영하여 하락세 지속
- 그러나 회사채수익률과 같은 장기금리는 시중 유동성보다는 시장 참여자의 기대 심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음. 콜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관투자자들 사이에 금리가 단기적으로 바닥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장기금리의 보합세가 지속되어 장단기 금리차는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향후 자금수요 증대 가능성과 적정금리 수준(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현재의 금리 수준이 저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임
- 2월 8일 현재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은 8.14%를 기록

- (주식시장) 주가 하락세 지속

- 산유국의 재정위기가 심화되는 등 국제금융시장 불안정, 주가지수 선물 약세에 따른 프로그램 매도세 지속, 금리의 추가 하락 제약 등으로 하락세가 계속됨
- 또 2월 유상증자 물량이 1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증시에 심리적 부담을 준 것도 주가의 하락세 지속을 부추김
- 그러나 정부의 금리 추가 인하 방침, 주가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 등으로 하락폭은 제약됨. 2월 8일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545.38 포인트를 기록

(채 창 균 ckche@hri.co.kr ☎724-4031)